

## 근·현대 民村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 -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사례 -\*

전종한\*\*

### A Study on the Territoriality and the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of a Commoner's Settlement in Modern Times\*

Jong-Han Jeon\*\*

**요약** : 이 논문은 근·현대 民村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촌락민의 제 관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촌락민의 중층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지역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금강 범람원 변에 입지한 민촌적 배경의 진주강씨 종족마을이다. 이 촌락은 마을이 형성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견고한 사회적 집단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이른바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현대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들을 둘러싼 제 관계를 반영하며 촌락 영역의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필자는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통혼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현대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중층적 촌락권으로 대변되는 이 마을의 영역성은 장하리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사회·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 근·현대, 민촌, 영역성, 촌락권, 인간-자연 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

**Abstract** :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quired the multi-layered sphere of a commoner's settlement of Jangha-ri in modern times to approach the territoriality and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of it. This settlement has originated in a lineage settlement of Jinju-Gang, and has experienced socio-spatial cohesion since its making(the 17th Century). Especially, it is found that the territoriality of Jangha-ri has fluctuated in times and has obtained multi-layeredness according to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o the social relationship, and to the political relationship of villagers. As a result, it is interpreted that the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and territoriality of Jangha-ri in modern times do not only have a physical reality, but also social, political, cultural one.

**Key Words** : modern times, commoner's settlement, territoriality, sphere of rural settlement, human-nature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political relationship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과제번호: KRF-2004-072-AM200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5년도 학술심포지움 <근대와 지리>에서 발표하였음.

\*\* 충남대학교 마을공동체연구단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ship, Research Center for Settlement Commu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ilotoper@yahoo.co.kr

## 1. 머리말: ‘관계’를 통한 촌락 읽기

이 연구는 촌락이 갖는 소유주로서의 측면보다는 촌락의 영역성이 촌락민을 둘러싼 생태, 사회, 정치적 제 관계와 연동한다는 관점에서 있다. 이 논문은 촌락민의 제 관계와 연동하는 촌락 경계의 중층성을 보여주는 한편, 한국에서 근대 이후 촌락이 급격한 해체에 접어들었다는 기존의 일반적 견해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보고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인문지리학 안팎의 촌락 관련 연구들은 사실상 반촌(사족촌락)에 대한 연구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민촌적 배경을 갖는 마을의 사회공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 검토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경험적 사례를 제공해 줄 것이라 보았다.

일반적으로 인문지리학에서 하나의 촌락에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는 촌락의 영역을 단일한 경계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촌락의 형성 과정 및 내부 공간 요소들을 살피는 것을 뜻했다. 촌락을 자기완결적 개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촌락내 제 경관 요소들의 파악, 각 요소별 입지와 기능적 연관성 분석, 촌락에 대한 각종 투입-산출과정의 추적에 매우 용이하였다. 반면에 촌락의 영역 및 경관 형성에 작용하는, 특별히 각 촌락의 행정적, 물리적 경계를 초월해 전개되는 다양한 ‘제 관계’의 맥락을 놓치기 쉽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관점은 촌락이 갖는 소유주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성과를 쌓아 왔지만 관계적 존재로서의 촌락이 갖는 사회공간적 성격에 관해서는 대체로 간과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촌락의 경관과 영역성(territoriality)’은 촌락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공간적 관계와 聯動하며 전개된다’는 몇몇 선행 연구들의 문제의식이 주목된다(Sack, 1986, 58-60; Claval, 2005, 13-14; Palang, 2005, 4). 여기서 ‘촌락을 둘러싼 사회·공간적 제 관계’는 무수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망라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문화지리학 및 사회지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촌락민의 적응전략과

그 과정(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촌-분촌 관계나 국지적 통혼권 같은 혈연·지연적 관계[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접 촌락과의 사회·문화적 갈등이나 비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공동 지향하는 전략적 연대[정치적 관계] 등 세 가지가 그것이다.

즉 촌락의 영역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촌락민이 주체가 되는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접 촌락과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고 공간적으로 중층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촌락에는 다양한 관계들과 관련되는, 서로 다른 스케일의 복수 영역들이 퇴적됨으로써 단일 경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중층적인 촌락권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해당 촌락의 사회공간적 성격의 일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개별 촌락이 아닌 ‘일련의 촌락들’을 보려는 시각이고, 물리적 형태로서의 촌락보다는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촌락’의 차원에 관심 갖는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 때 촌락내의 제 장소와 경관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제 관계들을 내포한 담지체로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촌적 배경을 갖는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를 사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20세기 후반이후 촌락으로의 U턴, J턴, I턴 현상이 점증하면서(Mitchell, 2004), 촌락이 전원적 삶의 장소를 넘어 관광, 여가, 휴양 등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村落性에 대해서도 사회/문화적 구성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Philips, 1998; Little, 1999; Palang et al., 2005). 여기에 세계화의 흐름에 반동하여 각 지역 및 국가 정체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촌락 지역과 그곳의 경관들에 대해 전통 문화 및 정체성의 근원지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Lowenthal, 1994, 20-29; Brace, 1999, 106).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학, 인류학을 중심으로 촌락 연구가 부흥하고 있고(김일철 외, 1998; 김필동, 2000; 이

창기, 2003; 김준, 2004), 역사학에서도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정진영, 1998; 오영교, 2004; 권내현, 2004), 이에 더하여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제적 연구가 촉진되고 있다(정근식 외, 2003; 문옥표 외, 2004).

이 같은 지성계의 동향 속에서 전통 문화의 기층 구조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학제적 연구에서 경관과 장소의 가치를 내세우는 영역의 하나가 촌락권 연구이다. 촌락권이란 다양한 대립과 협력 관계를 반복하는 일정 범위의 촌락 집합체를 의미한다(이문중, 1998, 11). 사회학계에서는 장기적 변동, 즉 장기구조사적 구상으로 촌락을 풀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마을권 연구를 시도한 바 있고(정근식 외, 2003), 지리학계에서는 일정 범위의 촌락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서 전개된 사회와 공간의 습합관계를 토대로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촌락권을 구분해 낸 연구가 발표되었다(전중환, 2004).

한편 촌락사회지리학자 Cloke *et al*(1994)의 언급처럼, 최근 영어권에서는 촌락 지역이 젠더, 성별, 민족성 등에 자연스럽게 연관되면서 다양한 내적 차별성들이 부각되고 있다. 즉 20세기를 지나면서 계층이나 사회관계망, 생활양식 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촌락 안에 매우 이질적인 주민들이 혼재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틀이 모색되고 있다. 고정된 입지로서의 전통적인 촌락 개념이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끝없이 유동적이고 전이적인 용어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통적 촌락 지역에 관한 충분한 문화지리적, 사회지리적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삼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촌락 연구에 있어서는 산촌, 어촌, 농촌 등 주로 입지 특성과 관련한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반촌과 민촌, 나아가 중인촌, 천민촌 등 사회공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촌락들에 대한 인식과 검토가 크게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에서 최근 보고되는 촌락의 경관 변화 및 사회적 이질성에 대한 문제도 해당 촌락의 전통적인 사회공간적 성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될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인문지리학계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입지 특성에 따른 촌락의 유형 분류에 근거하고 있고, 그 대상을 유력한 종족촌락이나 사족촌락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주로 전통시대의 촌락 분석에 치중하였고 근·현대이후의 변화상에 대해 소홀하였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그 대상이 班村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지리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등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촌락공동체의 생애와 이력을 엿볼 수 있는 문헌 자료와 전통 경관이 사족집단들을 중심으로 생산, 보존되어 왔다는 현실적 제약에 있었다. 그렇지만 '반촌'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촌락을 구성하는 양대 줄기의 하나가 바로 '民村'에 관한 문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촌락의 경관과 장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사실상 민촌적 배경의 촌락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부여군의 한 민촌을 사례로 그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을 탐구하는 작업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 있어서 민촌의 근·현대시기는 반촌의 그것에 비해 사회적 성격 및 경관 변화의 측면에서 격동의 시대였음이 틀림없다. 20세기 전반의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거쳐 지난 세기 후반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민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시기 동안 민촌의 촌락민들은 전통적 신분 질서의 해체와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누구보다도 갈망하였고, 이 연장선에서 이들은 촌락 지역의 근대화과정에서 변화를 적극 주도한 세력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선행 연구들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1차 산업이나 고정된 입지로서의 기존의 촌락 개념이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 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 같은 인식의 전환에 따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촌락에 대한 접근 외에 사회적, 정신적 실체로서 촌락성을 해석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점, 따라서 (셋째) 촌락의 자연적 경계나 행정적 관리의 차원에서 설정되는 경계 외에 촌락민이 주체가 되는 제 관계의 촌락권을 탐색해 보는 것은 촌락의 사회공간적 성격을 탐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는 점, 넷째 한국의 근대화과정에 주목하여 근·현대 동안 전통 촌락의 사회공간적 성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 지리학을 포함한 학계 안팎의 촌락 연구는 대체로 반촌 연구에 치중해 왔고 민족적 배경을 가진 촌락 연구가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 3. 마을의 형성과정과 민족적 성격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부여읍과 강경을 사이의 금강 본류 연안에 위치한다. 마을의 가옥들은 台城山

(110m)을 배후 산지로 하여 그 동쪽 산록부의 고도 10~20m 사이에 위치한다. 마을 앞으로는 금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지가 동남쪽을 향하여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충적지는 현재 농경지로 개간되어 시설 영농이 행해지고 있으며 '걸고 기름지다'의 의미에서 '검신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육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태성산 동쪽의 두래미 나루로부터 금강을 건너 그 상류의 부여 및 하류 쪽의 강경을 왕래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북고리를 경유하는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부여읍에 연결되고 있다. 장하리는 후포리(뒷개), 장정(웃말, 아랫말, 가랫골, 기암골을 합쳐 부르는 지명), 탑골(탑산골), 하곡(새우실 혹은 화약골이라고도 불림) 등의 小村들(hamlets)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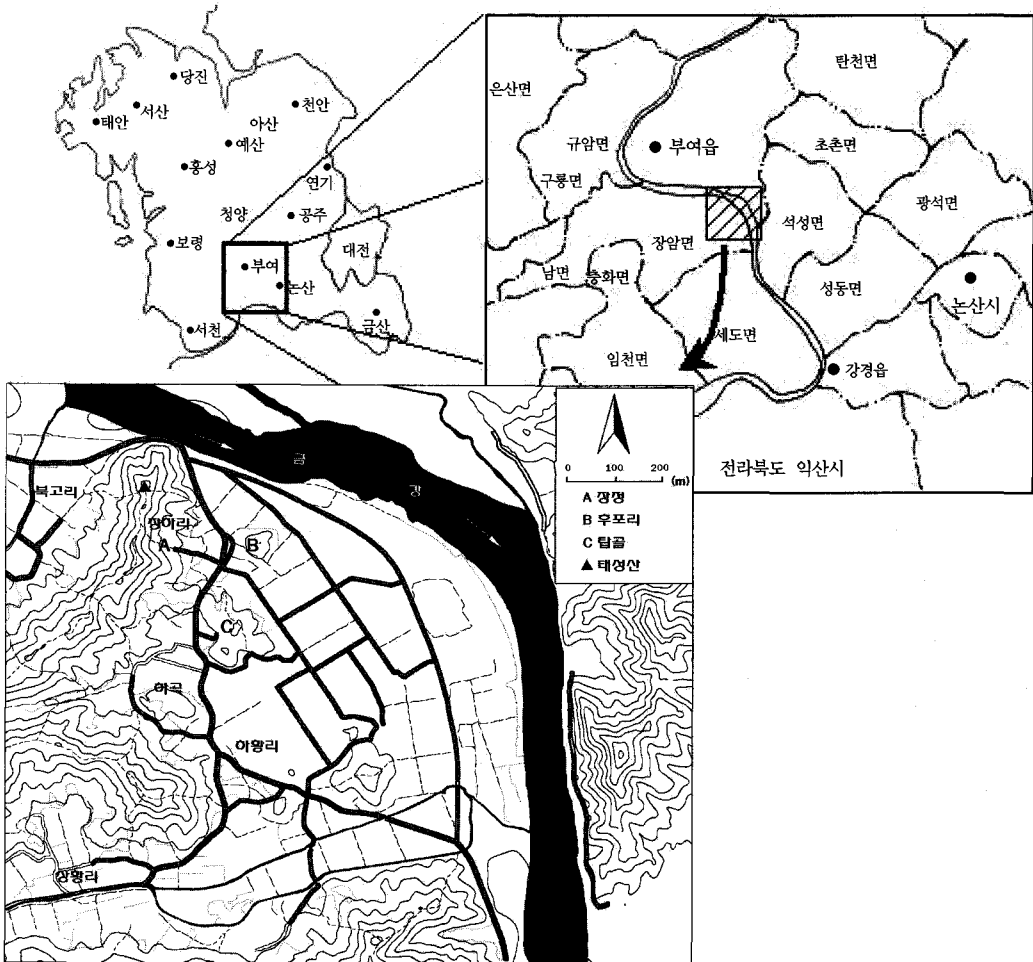


그림 1. 장하리의 입지와 자연지리적 환경

표 1. 진주강씨의 장하리 입향 계보

13세	應時 — 應明 — 應吉 — 應享(1549-?, 묘: 충남 청양)
	:          :          :
14세	致蓀(1581-1641, 묘: 충남 부여 장암면 상황리 화림)
15세	渭(1603-1664, 묘: 위와 같음)
16세	*孟宗[1622-1661, 묘: 위와 같음, =●(장하리 *신창맹씨)]   ★장하리(후포) 입향조. 입향 시기는 17세기 중반.
17세	*壽堅(1645-?, 묘: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기암동)
18세	*素哲(1672-?, 묘: 위와 같음) — *義哲 : ★태성산 산록을 개간하며 장정마을로 입향
19세	泰命[?-1737, 묘: 장암면 북고리, =●(영월엄씨)] : ★진주강씨가 북고리로 확산하는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시기는 대략 18세기 초엽.

자료 출처: 『晉州姜氏世譜』(戊午譜, 1918)

주: \*는 본문 중에서 언급된 인물

표 2. 1930년대 부여군의 50호 이상 종족촌락

촌락명 (자연촌락)	종족집단	종족구성원(%)		타종족구성원		합계	
		호(戶)	인구	호(戶)	인구	호(戶)	인구
부여면 저석리(내유촌)	안동김씨(安東金氏)	120(83.9)	720(85.7)	23	120	143	840
장암면 장하리(장정)	진주강씨(晉州姜氏)	98(89.1)	588(89.6)	12	68	110	656
초촌면 추양리(추동)	전주이씨(全州李氏)	110(92.4)	536(94.4)	9	32	119	568
석성면 봉정리(사포)	담양전씨(潭陽田氏)	60(90.9)	350(92.1)	6	30	66	380
세도면 동사리(동곡)	풍양조씨(豐壤趙氏)	55(73.3)	275(74.3)	20	95	75	370
초촌면 초평리(초리)	충주지씨(忠州池氏)	67(88.2)	327(90.6)	9	34	76	361

자료 출처: 『朝鮮の聚落』(後篇), 1935

주: 총인구 순으로 정렬함

하곡을 제외한 후포리, 장정, 탐골을 아우르는 범위는 晉州姜氏 宗族集團에 의해 혈연적,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보이며 이 글에서 연구 대상이 된다.

오늘날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진주강씨와 그 인척들이다. 먼 옛날 후포리에는 신창맹씨, 한양조씨, 거창신씨의 세 개 성씨가 20호 가량 거주했었다고 전한다.<sup>1)</sup> 이 중 新昌孟氏는 진주강씨 姜孟宗의 처가였다. 이 점

으로 미루어 강맹종이라는 인물을 장하리에 정착한 진주강씨의 입향조로 설정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의 할아버지인 강치손이 청양군 정산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기도 하고, 강맹종의 아들 姜壽堅이 자신의 외가였던 신창맹씨 터전으로 처음 입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의 통혼 이주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참고해 보면, 처가로의 입향 가능성이 가장 크며 그 다

음으로 외가로의 입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상황리 화림에 조성한 선조 묘소에 대해서는 강맹종이 정착 이후 자신의 先代 3세 묘소를 마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강맹종-강수견 父子의 생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진주강씨의 장하리 정착 시기는 대략 17세기 중반이었고 18세기 초엽에는 인접한 북고리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1).<sup>3)</sup>

강맹종-강수견 부자의 최초 정착지는 후포리였다. 그리고 수견의 아들 素哲과 義哲 대에 가서 태성산 동쪽 산록을 개척하며 정정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다.<sup>4)</sup> 백제의 병영촌에 그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장정 마을의 형성 시기는 후포리에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진주강씨의 입장에서는 후포리 다음으로 개척된 마을인 것이다. 그 후 1930년대 조사에 의하면 장하리 장정 마을은 주민 구성원의 89%가 진주강씨 종족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 규모의 면에서는 부여군에서 두 번째로 큰 종족마을로 성장한다(표 2).<sup>5)</sup>

한편, 촌락민의 전통적인 사회 신분과 관련지어 촌락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장하리는 '조선후기의 민촌'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명망 있는 사족집단이라 하더라도 3대 이상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평민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만큼 촌락의 전통적 성격이 반촌이나 민촌이나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어떤 촌락의 전통적 성격을 민촌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촌락민이나 연구자에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그만큼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근거하여 진주강씨의 장하리를 민촌적 배경을 갖는 마을로 규정한다.

신창맹씨의 근거지가 포구 취락이었던 것으로 보아 상인이나 객주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진주강씨가 바로 이들과 통혼하여 입향하였다는 점, 진주강씨의 최초 정착지 역시 포구 취락인 후포리였다는 점, 장정 마을과 후포리 일대는 조선시대 사족촌락의 일반적 입지였던 溪渠地와는 전혀 다르고, 근대적 관·배수로가 구비되기 이전까지 지형 및 수리 조건을 비롯해 기타 농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다는 점,<sup>6)</sup> 반촌의 경우와 달리 촌락 경관 요소들 중에

뚜렷한 유교적 경관이 거의 없다는 점, 최초의 족보 편찬이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sup>7)</sup> 근대시기 동안 마을 내에 많게는 여섯 개 소에 이르는 무당집이 있었다는 점<sup>8)</sup>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근의 대표적 사족집단이었던 상황리와 하황리 豐壤趙氏의 입장에서 장하리 진주강씨는 신분이 낮았던 계층으로 인식되어 통혼의 회피 대상이었다는 점,<sup>9)</sup> 일제시기의 자료에서 '宗統을 계승한 奉祀孫은 학문 및 지식이 부족하고 특기할 만한 명망이 없으며 재산도 단지 궁핍하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sup>10)</sup> 한국 전쟁기 동안 인접한 하황리 풍양조씨 집안과의 사이에서 生死를 오가는 갈등이 있었다는 점<sup>11)</sup> 등은 장하리가 갖는 민촌적 배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 4. 촌락민의 '제 관계'를 통해 본 마을의 촌락권

##### 1) 토지 소유 관계와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

오늘날 한국에서 종족집단과 종족마을이 해체되어 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비교할 때 장하리의 진주강씨는 사회·공간적으로 집단성이 여전히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사회적 집단성은 종족촌락의 지속성이나 무속 신앙 및 대중교 같은 종교적 측면, 그리고 저녁마다 주민들이 회합하는 마을 회관 이용도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경지 개간을 위한 집단 노동 및 토지 소유의 공동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종중 및 소중중 단위의 집단적 토지 소유 관행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장하리의 진주강씨 종중은 '虎網契'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다.<sup>12)</sup> 호망계 소유의 토지는 약 13,960평으로서 11개 필지로 나누어져 검신들에 산포한다(그림 2). 이 토지는 종중에서 관리하고 진주강씨 구성원들에게 소작 형식으로 배분되어 경작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호망토지로부터의 종중 수입은 연간 4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표 3). 대개의 반촌의 경우와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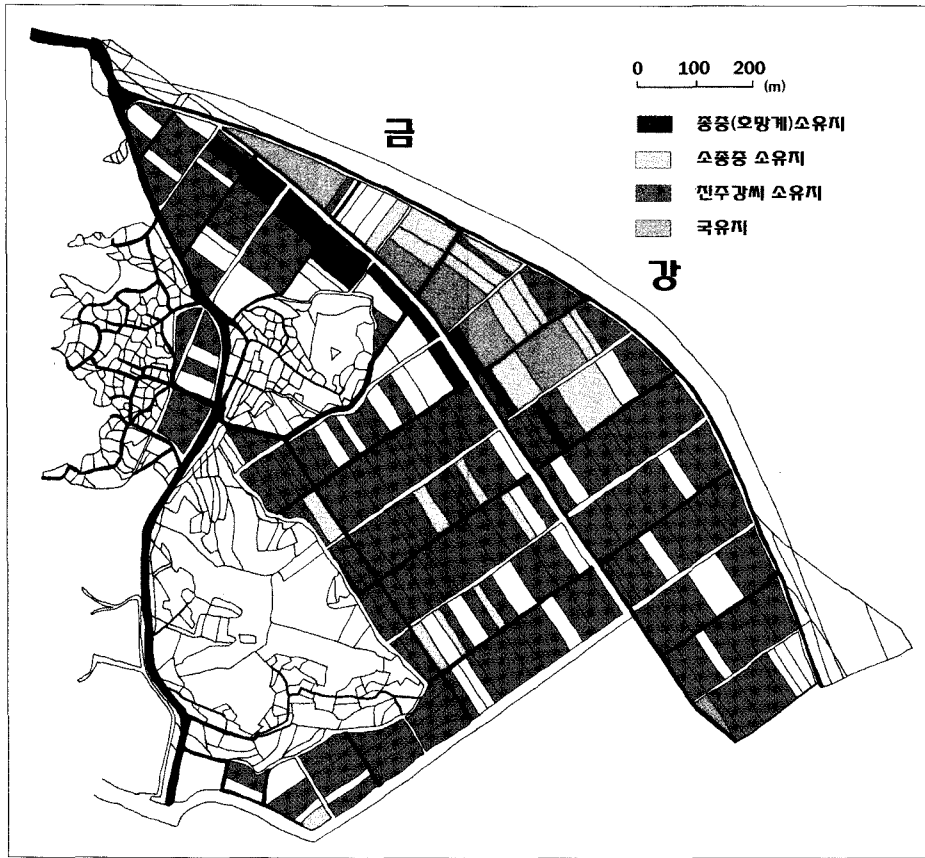


그림 2. 토지 소유주별 경지 분포도(1999년의 경지정리 직후)

호망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종종 명의가 아닌 '강홍모 외 14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망(대중중) 토지가 집단 노동의 결과로 얻어졌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 외에도 공동 소유지로서 21개 필지에 이르는 소중중 토지와, 대중교 사당의 제사 비용 충당을 위해 마련된 450평의 祭田<sup>13)</sup>이 있다. 결국 일부 국유지를 제외할 때 검신들의 대부분은 종종 및 소중중 단위의 공동 소유지와 진주강씨의 개인별 소유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진주강씨 종족집단이 검신들의 실질적인 개간 주체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장하리에 있어서 토지의 공동 소유 관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진주강씨는 어떻게 검신들의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일차적으로 이 곳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 범람원, 그것도 본류 유역의 범람원을 개인

의 노동으로 경지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필요에서 자연스럽게 집단 노동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토지 소유의 공동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20세기 초 부여군 최초로 이들에게 유입되었다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sup>14)</sup>은 외부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것이라기보다는 장하리 주민들이 열악한 생태적,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자생적 적응전략이자 이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초 마을 출신의 강석기라는 인물은 마을 앞 금강변에 15,700평의 포플러 숲을 조성했고 이를 계기로 상습 침수지였던 검신들이 본격적으로 개간되기 시작했다. <그림 2>에서 호망계 소유지의 외곽에 국유지가 분포한다는 것은 1970년대 인공제방이 축조되기 직 전까지 그곳이 자연제방 너머의 하천부지였음을 뜻한

표 3. 호망 토지 및 남계공 종중 토지의 도조 내역(2004년)

번호	경작권	지번	평	말/되	금액(원)
1	강노구	802-7(2) 804-4(3)	828.2	16.56	243,000
2	강현순	802-7(1)	262.5	5.25	77,000
3	강현규	803-9(1)	691.2	11.82	173,000
4	장민석	803-9(2)	555.7	11.82	163,000
5	강은모	804-4(1)	157.9	11.11	46,000
6	강월구	804-4(2)	921.1	3.16	270,000
7	강근구	804-4(4)	245.0	18.42	72,000
8	강학모	811-4(1)	660.7	4.90	194,000
9	강현두	811-4(2)	500.0	13.21	147,000
10	강병두	811-4(4)	796.5	10.00	234,000
11	강래모	812-4(1)	660.1	13.20	194,000
12	강병필	815-3	526.4	10.53	154,000
13	강규옥	818-1(2) 819-1	1,457.4	29.15	428,000
14	김길중	820-2	602.3	12.05	177,000
15	강치구	820-3(3)	677.6	13.55	199,000
16	김홍중	820-3(2)	649.2	12.98	190,000
17	강효구	820-3(1)	425.0	8.5	124,000
18	강효구	825-4	489.0	9.78	147,000
19	강상모	825-6(3)	1,038.2	20.76	305,000
20	강산구	825-6(2)	1,143.5	22.87	336,000
21	강유구	825-6(1)	471.6	9.43	138,000
22	강행전	823-3	203.0	4.06	59,000
계			13,961.3	277.20	4,067,000

주: 호망 토지와 남계공(강맹종의 조부 강치손) 종중 토지는 진주강씨 구성원에게 경작권이 주어지며 일정한 소작료를 받는다. 경작권은 매대가 가능하며 비록 타성이라 할지라도 장하리 주민이라면 경작권을 사들일 수 있다. 경작인 중 타성인 경우라도 대부분은 진주강씨의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 가령 위 표에서 장민석은 부인이 진주강씨이며 김홍중은 어머니가 진주강씨이다. 검신들에는 모두 11개 지번의 호망 토지가 있으며, 남계공 종중 토지는 825-6번지 1개이다.

자료 출처: 현지조사(남계공 종중 및 호망토지 도조내역서).

다. 그리고, 호망계 소유지가 금강과 평행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자연제방의 위치와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당시 금강변의 개척전선대가 개간된 결과가 호망토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소중중 소유지가 호망계 소유지 바깥 쪽에 분포하는 것은 대중중 토지 개간 이후 마을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중중 분화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서 소중중

을 단위로 한 토지 개간이 금강을 향해서 더욱 전개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대개의 사족촌락들과 달리 종중 토지 및 소중중 토지의 소유주 명칭이 계파 이름이 아닌 ‘姜○○外 ~人’의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 개간 과정에서 집단적 노동이 수행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공동 소유지의 비율이 전체 경지의 30% 이상이 되었다고 하



며<sup>15)</sup> 그 만큼 검신들의 개간에서 집단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비중이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풍양조씨 근거지 내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 하던 장하리 주민의 사회적 처지(position)를 감안할 때 이들은 이 곳을 피해 보다 나은 생태 환경을 찾아 도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경지개간을 위한 노동 및 토지 소유에서 나타나는 집단성은 1차적으로 열악한 생태 조건과 진주강씨라는 혈연적 동질성에 기초하는 것이며, 고립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본 장하리의 촌락권은 풍양조씨 근거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한편 장정, 후포, 탑골로 구성되는 진주강씨 거주지와 금강변의 검신들을 함께 묶는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촌락권은 검신들에서 주로 논 농사가 행해지던 시기에는 두레와 같은 노동 공동체의 공간적 배경이었고, 1990년대 말 이후의 시설 농업 시기에는 작목반 조직이나 상품 생산 및 출하의 협력 단위와 공간적으로 일치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 2) 통혼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

전통시대의 경우 어떤 두 집단 사이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통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서는 통혼권과 모촌-분촌 관계에 근거해서 장하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을 그려보기로 한다.

먼저 통혼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장하리는 종족마을의 속성상 村內婚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통적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민촌적 배경을 갖는 장하리 주민들은 인접한 상황리 및 하황리의 풍양조씨와도 혼인관계가 거의 맺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육로에 의한 근거리 통혼과 금강 유로를 매개로 한 중·장거리 통혼이라는 독특한 통혼권이 전개되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해 주는 증거의 하나가 바로 宅號이다.

택호에는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다. 하나는 '김 판서 맥', '이 참판 맥' 하는 식으로 집 주인의 벼슬 이름을 붙여서 '그 인물의 집안'을 지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 맥'이나 '안성 맥'처럼 주부의 친정고

향의 이름을 따와서 '그 고장에서 시집온 여자'를 뜻하는 경우이다. 물론 아산의 외암마을이나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볼 수 있듯이 관직 진출이 빈번했던 유력 사족 촌락일 수록 전자의 용례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장하리의 진주강씨에게는 19세기를 전후로 한 24~27世 자손에게서 후자의 용례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그림 3). 특이한 것은 현재까지 그 의미가 '그 고장에서 시집온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모친으로 하는 집안'을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즉 진주강씨 소종중 내의 작은 집안들을 식별함에 있어서 남편과 관련된 택호가 아니라 부인의 고향 지명을 사용하는 택호가 쓰여 온 것이다. 아마도 장하리에서는 관직 진출자가 거의 없었고 촌락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남편들과 관련된 별칭에 의해 각 집안들을 식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족촌락의 특성상 촌외혼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외지로부터 시집온 여자의 택호를 통해 소종중 내 '집안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그 대안으로서 선택된 것이라 여겨진다(표 4).

〈표 4〉는 『晉州姜氏通溪公派中正公家譜』(1979)를 분석하여 외지로부터 시집온 부인들에게서 기원한 택호들을 모두 확인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현재의 행정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89건 중 약 80.9%에 이르는 72건이 파악될 수 있었다. 이를 군단위로 살펴보면 부여가 46건으로 약 63.9%에 이르고, 서천과 논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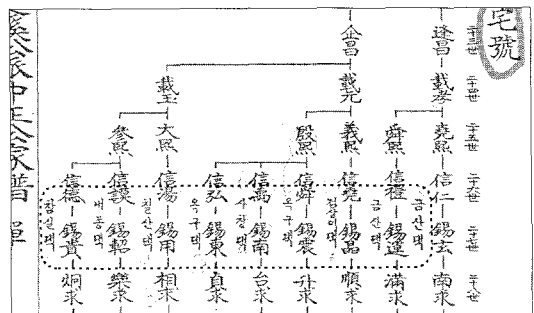


그림 3. 『中正公家寶』(1979)에서 확인되는 宅號들

주: 표에서 금산맥은 載孝의 부인으로서, 택호로서의 의미는 載孝의 자손들을 뜻한다. 옥구맥은 殷熙의 처이며 택호로서의 '옥구맥'은 그 자손들을 지칭한다. 위 표에서 택호가 기입된 위치는 정확하지 않음에 주의.

표 4. 宅號를 통해서 본 장하리 진주강씨의 통혼권

宅號	해당 지역	宅號	해당 지역	宅號	해당 지역
금산 덕	금산	새말 덕	부여 규암면	검진에 덕	부여 임천면
점상이 덕	부여 남면	청장리 덕	청양	새집 덕	-
옥구 덕	전북 옥구	원당리 덕	부여 충화면	상서 덕	-
사창 덕	부여 임천면	늘여을 덕	부여 세도면	저지 덕*	태안 안면도
칠산 덕	부여 양화면	오룡골 덕	-	장급 덕	논산 채운면
내동 덕	부여 장암면	등애 덕	부여 장암면	삼산 덕	논산 성동면
참실 덕	부여 은산면	합하골 덕	부여 장암면	점상리 덕	부여 장암면
요당이 덕	부여 장암면	한실 덕	서천 문산면	신천 덕	-
송당 덕	부여 규암면	안말 덕	-	송당 덕	부여 규암면
황골 덕	부여 양화면	비인 덕	서천 비인면	저동 덕	부여 내산면
동소골 덕	부여 양화면	등애 덕	부여 장암면	골미 덕	청양 남양면
백호실 덕	부여 양화면	합하골 덕	부여 장암면	참실 덕	-
갱골 덕	-	한실 덕	서천 문산면	홍산 덕	부여 홍산면
점상이 덕	부여 장암면	안말 덕	-	뒷뒤기 덕	부여 장암면
연산 덕	논산 연산면	비인 덕	서천 비인면	영고개 덕	부여 임천면
양암리 덕	-	희여티 덕	부여 부여읍	평촌 덕	경기도 평촌
옥실 덕	부여 임천면	한산 덕	서천 한산면	공주 덕	공주
개오 덕	-	용안 덕	익산 용안면	성북 덕	부여 장암면
등애 덕	부여 장암면	낭산 덕	익산 낭산면	표빈 덕	서천
근유동 덕	부여 구룡면	남포 덕	보령 남포면	상리 덕	논산 성동면
대양리 덕	부여 은산면	유암리 덕	부여 세도면	소곤리 덕	논산 성동면
갈리 덕	-	동주메 덕	부여 양화면	돌말 덕	부여 규암면
마장리 덕	부여 남면	팔층 덕	부여 충화면	화산 덕	청양 장평면
한산 덕	서천 한산면	나말 덕	부여 부여읍	물풍 덕	공주
지암리 덕	-	다방골 덕	부여 홍산면	마동 덕	부여 남면
동리 덕	부여 부여읍	장동 덕	-	삼동 덕	부여 홍산면
목석골 덕	-	다바실 덕	-	버드랭이 덕	부여 부여읍
탑골 덕	부여 부여읍	장자울	-	은동 덕	부여 초촌면
나루미 덕	부여 세도면	노성 덕	논산 노성면	장리 덕	-
늪골 덕*	경기도 화성	새태골 덕	부여 장암면		

각각 7건(9.7%)과 6건(8.3%)이며, 기타 청양 3건, 공주 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부여권 중심의 단거리 통혼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중앙 정계 진출을 매개로 전국 단위의 통혼권 형성이 가능했던 사족집단들의 경우와 대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택호의 내용을 지리적으로 검토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금강이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염두에 두고 통혼권을 추적해 볼 때, 금강 하류의 논산, 익산을 거쳐 옥구, 서천, 보령, 태안,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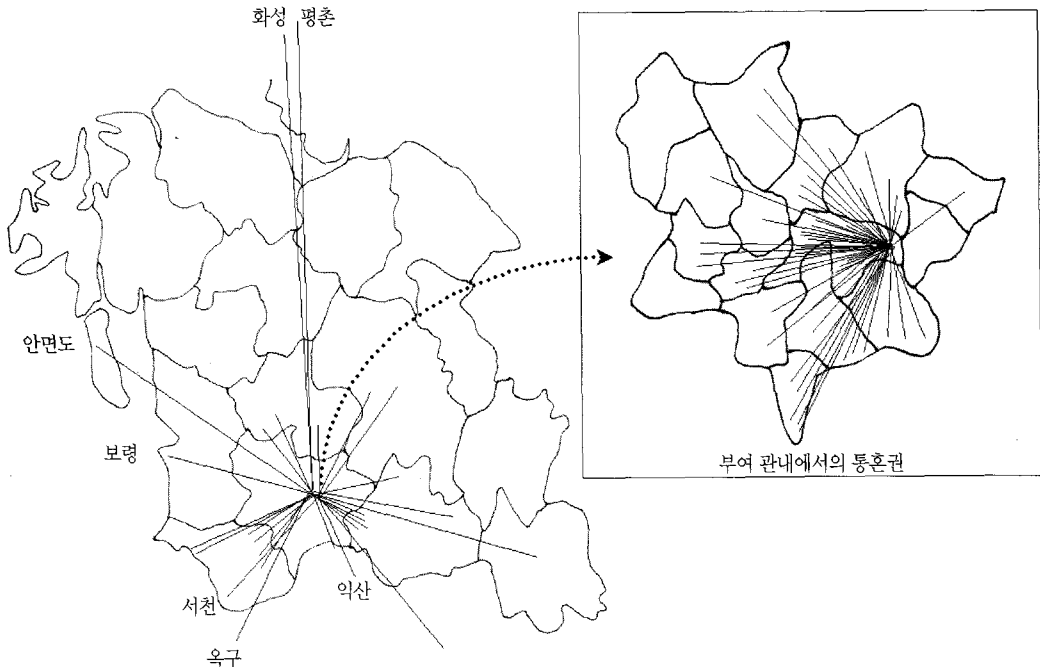


그림 4. 장하리 진주강씨의 통혼권

주: 표 4를 지도화 한 것임.

도 화성으로 이어지는 선형의 통혼 축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익산 2건, 옥구 1건, 보령 1건, 태안 1건, 경기도 화성 1건, 안양의 평촌 1건은 금강 수운 중심의 중·장거리 통혼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실제로 19~20세기 전반 동안 장하리를 비롯해 금강 중하류의 촌락들에서는 서해안 연안 지역으로부터 시집오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통혼을 주선하는 자가 있어 서해안 일대의 처녀들을 안면도산 소나무 뗏목에 태운 다음, 금강 하구로부터 군산과 강경, 부여로 올라가며 강가의 주요 마을에 한 사람씩 내려주는 식으로 혼인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sup>16)</sup> <표 4>에서 경기도 화성이 고향인 '늬글 맥'이나 태안 안면도에서 시집 온 '저지 맥'의 경우가 그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금강 수운 중심의 중·장거리 통혼을 제외하면, 장하리 진주강씨에게는 주로 부여 관내에서 선별적으로 통혼 대상을 찾는 근거리 통혼권이 지배적이었다(표 4, 그림 4).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사한 신분의 통혼 대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

로, 풍양조씨, 창녕성씨, 문화류씨, 여산송씨 등 과거의 임천 관내 혹은 부여현의 소위 班姓로 알려진 종족집단들과는 거의 통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혼지의 분포 패턴은 인접한 하황리와 상황리를 비롯한 반촌들을 건너뛰며 지리적으로 부여군 관내의 여러 곳에 산재하는 산포형 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통혼권을 상정할 때 특별히 주목되는 마을이 북고리이다. 북고리는 지리적으로 장하리 서북쪽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장하리와의 동질성이 대단히 강한 것이 특징이다. 북고리는 과거의 생태적 여건이 장하리와 거의 비슷했다고 하며, 인공제방이 축조된 이후 비로소 수리안전담이 확보된 마을이라는 점 역시 장하리의 그것과 공통된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근·현대 경관 변화의 측면에서 장하리의 경우와 매우 유사했던 마을이다. 북고리는 두 개의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촌(건년말)은 남평문씨 종족마을이고 도람말은 장하리의 진주강씨 후손들이 이주하여 형성한 分村이다. 월촌의 남평문씨는 경숙공파 일부 자손인데 임진왜란을 피하여 17세기

초에 정착하였으며, 도람말의 진주강씨는 남평문씨에 비해 50여년 늦게 입향하게 된다.

그러나 장하리와 북고리의 촌락민들이 애초부터 사회·공간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두 촌락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평문씨와 진주강씨의 통혼은 17~18세기 동안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 신분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일 것이다.

남평문씨와 진주강씨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긴밀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sup>17)</sup> 두 종족집단 사이의 통혼 관계가 족보에서 확인되는 것은 1800년대 이후이다. 진주강씨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19세기동안 모두 7건의 통혼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20세 如周의 자손들에게 4건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도람말의 입향조는 如周의 계파일 가능성이 크다.<sup>18)</sup>

오늘날 남평문씨와 진주강씨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상호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만큼 그 동안 중복 통혼이 반복되어 왔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이렇게 볼 때, 북고리의 열악한 생태적 환경에 정착한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쇠락이 남평문씨를 점차 민촌화하였고,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한 경험을 쌓아오는 동안 두 촌락민들은 점차 지연공동체로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결국 오늘날과 같은 사회·공간적 단위성을 갖게 된 것이라 이해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토대로 장하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을 설정한다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즉 금강 수운을 축으로 하여 서해안 연안으로 이어지던 '선형 통혼권', 통혼지가 부여 관내에 집중 분포하는 '근거리-산포형 통혼권', 그리고 북고리와의 관계에 있어 지리적 연속성과 사회적 동질성을 보이는 '면상의 촌락권'을 말한다. 이 중 첫 번째 통혼권은 신분제가 해체된 근·현대 이후 급격히 희석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두 번째 통혼권은 약하게나마 지속되고 있고 세 번째 촌락권은 통혼관계의 중복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외부로부터의 몇몇 도전들에 대해 장하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응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가 출현하였다. 최근의 정치적 연대는

한편에서 장하리와 북고리 사이의 사회적 동질성을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두 촌락을 넘어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하황리, 상황리를 포함하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공간적 무대로 삼고 있다. 그 기저에는 금강 연안의 촌락들이 공히 처한 생태적 여건과 지리적 인접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3) 사회·문화적 차이와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

20세기 중반이후 장하리 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주변의 몇몇 반촌을 포함하여 어느 촌락민들에 비해서도 주도적이었다. 그 효시가 된 것은 상·하황리 풍양조씨와 장하리 진주강씨의 친목 모임인 江湖同志會의 결성이었다. 그것은 표현 그대로 전통적인 사회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일괄타결하고, 유사한 생태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공통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일종의 정치적 제휴였다.

조선 시대의 신분상의 차이와 여기에서 비롯된 한국 전쟁기 동안의 갈등 속에서 두 종족마을은 서로 대단히 배타적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만 하여도 상대편 마을을 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두 마을 사이에 위치한 남산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사실상 어른들 간의 격투기장을 방불케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을 보면 두 촌락민 사이의 적대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촌락 사이의 갈등은 소비적일 뿐이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더구나 두 촌락의 입지 여건상 금강 본류의 범람을 극복하고 개척 전선대를 전진시키는 생계의 문제에 당면해서는 전략상 상호 연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장하리에 거주하던 강동구<sup>19)</sup>는 과거의 갈등을 일소하고 두 종족집단 간에 친목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풍양조씨 측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지만, 1964년 풍양조씨 8명과 진주강씨 5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재차 언급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때 진주강씨 1명은 모임을 반대하며 탈퇴하는 난항도 있었지만, 중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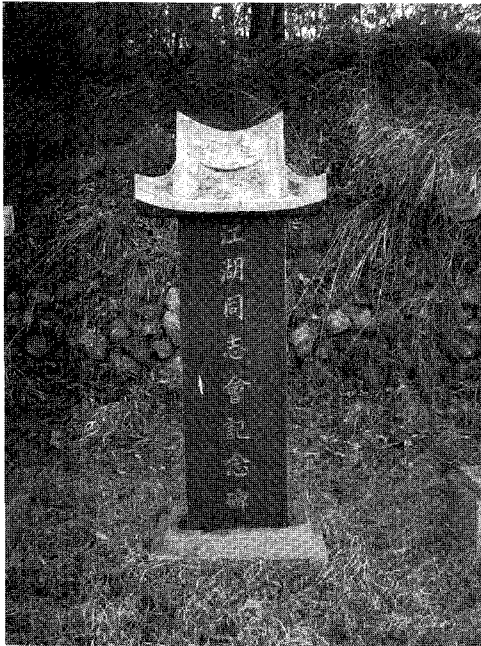


그림 5. 江湖同志會 기념비(하황리 소재)

표 5. 강호동지회 회원 명단

풍양조씨(27명)	진주강씨(20명)	기타(9명)
趙俊九 趙晟衍	姜春模 姜穆求	文益鎬 *文弼鎬
趙海衍 趙南貞	*姜蘭求 姜庚模	南昌祐 辛昌善
趙學衍 趙南律	姜顯文 姜贊求	金啓煥 李永鎬
趙南讚 趙南同	姜恒求 姜全求	金鍾喆 李英珪
趙南元 趙南熙	*姜銅求 姜權求	李完根
趙興衍 趙南始	姜殷模 姜中模	
趙南設 趙癸衍	姜一模 姜龍模	
趙南月 趙南聖	姜王求 姜洪模	
*趙誠烈 趙斗衍	姜演模 姜德模	
趙洙衍 趙陽九	姜雲求 姜治求	
趙種九 趙浩衍		
趙聖衍 趙輔九		
趙南嘩 趙南傑		
趙南錫		

주: \*는 본문 중에 언급한 인물임.

창설로 이어졌고 1985년 남산초등학교 부근에 세워진 강호동지회 기념비에는 57명의 창립회원 명단이 새겨 있다(표 5).<sup>20)</sup>

사실 강동구는 한국전쟁기 동안 장암면의 치안 부대 장으로서 풍양조씨와의 갈등 전선에서 선봉에 있던 인물로서 전쟁이후 그에 대한 법적 대가를 충분히 치른 상태였다.<sup>21)</sup> 그래서 그의 제안은 두 마을 간의 갈등 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그만큼 의미와 비중이 있는 것이었다.<sup>22)</sup> 이 때 풍양조씨 조성렬<sup>23)</sup>은 '금강 연안의 촌락 사이에 뜻을 함께 모으고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모임의 이름을 江湖同志會라고 짓게 된다(그림 5).

강호동지회는 풍양조씨와 진주강씨의 화해를 위한 친목회로서 발족한 것이었지만, 회원 명단을 보면 북고리의 남평문씨 2인<sup>24)</sup>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의 인공 제방으로 둘러싸인 소위 江湖의 네 개 촌락, 즉 상황리, 하황리, 장하리, 북고리의 모임이라는 이상적 형태를 취한 셈이다. 강호동지회는 결성 이후 1년에 1회씩 친목 여행을 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68년 금강변의 포플러 숲을 베어내고 1차 제방을 쌓는 시점에서 江湖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당

시 제방 축조 추진위원장은 조남준, 부위원장은 강난구로서 강호동지회 회원이었고, 이 사업을 위해 강호동지회 측에서 쌀 10가마니를 희사하였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강의 제방 축조는 사실상 강호동지회의 1차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강호동지회가 갖는 정치적 연대<sup>25)</sup>로서의 성향이 재차 확인된다. 오늘날까지 강호동지회는 20여명의 회원이 생존해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1회씩 친목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강호동지회 이외에도 장하리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일명 '환경사랑 주민협의회' (이하 주민협의회)라는 단체이다. 이 결사체는 1998년 장하리 2구에 들어선 전진산업의 영업을 반대하며 1999년 6월에 결성되었는데 이 모임 역시 장하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해당 업체는 건축자재 재활용 업체로서 허가받아 입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홍보와 달리 수도권 5대 소각장의 소각재를 반입하여 그것을 원료로 삼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 심각한 대기오염이 북고리, 장하리, 하황리, 상황리 등 주변 마을들에 피해를 주었고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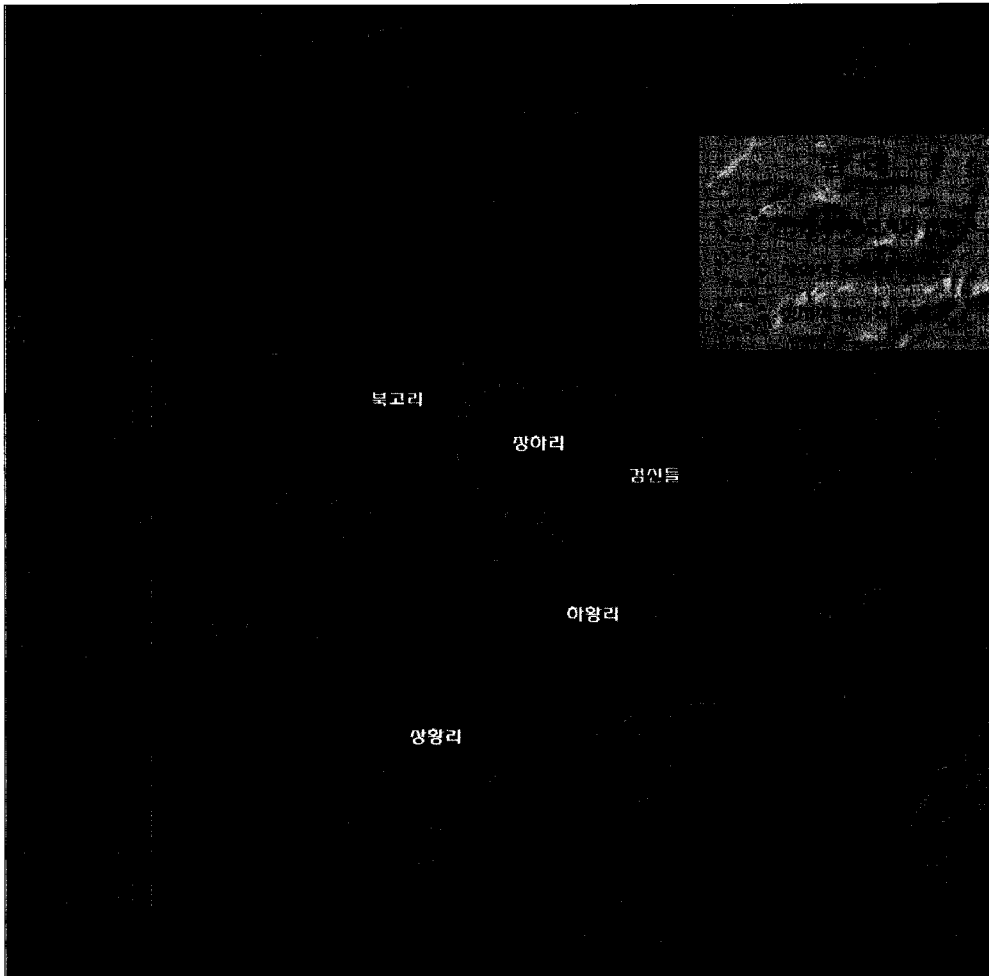


그림 6. 장하리의 중층적 촌락권

주: 위 그림에서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과,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 그리고 장하리, 북고리, 상왕리, 하왕리를 아우르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 지방을 권역으로 하여 분포하던 과거의 '근거리-산포형 통혼권' 및 금강으로부터 서해안 연안으로 이어지는 '선형의 통혼축'의 경우 오늘날 급속히 소멸하고 있거나 거의 화석화된 촌락권에 해당하므로 이 그림에 표현하지 않았다(다만 부여 중심의 근거리-산포형 통혼권에 대해서는 그림 4에서 제시함).

의 불법 매립에서 기인한 토양오염은 검신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주민협의회 역시 새롭게 처한 환경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대응으로서 출현한 것이었다.

결국 전전산업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정부로부터 내려졌다.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낼 만큼 주민협의회는 적극적인 이었고 장하리 주민들은 주도적이었으며 네 개 마을의

연대는 강성하였다. 이 협의회에 포함되는 마을은 북고리, 장하리, 하왕리, 상왕리로서 강호동지회의 그것과 동일했다. 이전부터 강호동지회가 이미 이들 마을을 동맹체로서 묶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각 마을의 이장과 반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그 임원진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협의회는 강호동지회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된다.

최근에는 북고리에 들어설 예정의 대규모 양돈업체에 대한 북고리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협회회의 공동의장에 따르면 조만간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시위의 전면에 나설 계획에 있다고 한다. 2005년 4월에는 부여군청 앞에서 1차 집회를 열어 <부여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주민협회의회는 ‘부여일원 환경사랑 주민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이 곳을 협회회의 본부로 삼아 충청남도 전역으로 지부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한다. 이 만큼 최근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이를 위한 정치적 연대 과정에서 장하리 주민들은 인근 마을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매우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sup>26)</sup>

강호동지회와 환경사랑 주민협의회회의의 결성 과정을 살펴볼 때 장하리가 중심이 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다. 북고리, 장하리, 하황리, 상황리에 이르는 영역이 그 범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술한 인간-자연관계의 촌락권,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과 함께 장하리의 중층적 촌락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장하리의 촌락권들을 종합적으로 그려보면 <그림 6>과 같다.

## 5. 맺음말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전통적 개념의 촌락이란 도시적인 것과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서 특정한 위치와 직결되는 고정된 입지(a fixed location)로서의 의미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20세기 이후 농업의 재구조화,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민의 촌락 유입, 촌락의 경관과 장소의 상품화 등은 촌락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촌락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촌락 개념은 재개념화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최근에는 촌락 지역에서 전개된 경관과 장소들에 대해서 지역정체성, 나아가 국가나 민족정체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촌락에

대한 이러한 최근의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근·현대 촌락에서 구성되어 온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근·현대=촌락 해체기’라는 등식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고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촌락성의 의미를 단순히 도시성의 대척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 따른 다양성과 내적 유동성을 갖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촌락 연구사를 검토해 볼 때, 이같은 인식 및 관련 작업은 최근 한국에서 보고되는 촌락 지역의 경관적 재구성파와 사회적 이질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그것의 일환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하리는 촌락민의 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소위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마을이다. 그러한 사회공간적 단위성은 열악한 생태적 조건과 고립된 사회적 처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를 토대로 장하리의 다양한 촌락권 형성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도적이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근·현대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이 주체가 된 제 관계들을 반영하며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제 관계들’의 입체상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는 없었지만 필자는 인간-자연 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고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 관계의 면에서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이 확인되었고, 통혼 관계의 차원에서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으며, 20세기 중반이후 최근에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차이를 넘어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를 아우르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제휴에 기초한 새로운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장하리의 중층적 촌락권은 마을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

고, 사회·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이라 이해되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촌락이 영역성은 물리적 실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들이 촌락의 경관과 영역성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지역의 경우와 같은 촌락 사례에 대해 지나친 세계화의 시각에서 경제적 접근 일변도로 설명하는 것은, 촌락민의 주체적 성격에 주목하지 못하고 촌락 지역의 변화를 마치 국가 혹은 국제 경제나 상위 중심지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는 단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촌락 변화의 '원인들'을 궁극적으로 촌락 외부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촌락의 '공간적 특성들'을 비공간적 기능들의 일방적 결과로만 간주하는 태도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오랜 생애와 전통을 가진 한국의 촌락 연구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바로 생태적, 사회적 제 환경 변화에 대한 촌락민들의 주체적 대응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촌락을 둘러싼 공간과 사회의 관계 및 그 변화의 동학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註

- 1) 『晉州姜氏通溪公派中正公家譜』(1979).
- 2) 진중환, 2002,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61, 107-108.
- 3) 17세 강수견의 위로 三代(강치손, 강위, 강맹종) 묘소가 장하리에 인접한 상황리 화림에 조성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진주강씨가 장하리에 입향할 당시 주변의 상황리와 하황리 일대는 豐壤趙氏 근거지였다. 그래서 풍양조씨 종족집단으로부터 어렵게 허락받아 선조들의 산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산소 앞으로 장하리 진주강씨 宗家가 독채로 자리하고 있고 약간의 宗畝를 소유하고 있다. 당초 종가는 장정 마을에 있었지만, 1970년 선조 묘소의 묘지가 떠난 후 종손이 보수하여 거주하게 된 것이다(제보: 강근구, 79; 강덕모, 73; 강상모, 69).
- 4) 『晉州姜氏世譜』(1918).
- 5) 『朝鮮의聚落』에 기록된 장하리 장정 마을의 경우(표 2) 후포

리와 탐골을 합친 범위로 보인다. 오늘날의 경우에도 장정 마을은 후포리, 탐골과 함께 장하리를 이루는 자연촌락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후포리와 탐골을 합친 범위(진주강씨의 장하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 6) 이 마을의 인근에는 하천이 발달해 있지 않고 저습지가 널리 펼쳐져 있었다. 이 저습지는 20세기 중후반까지도 금강 본류의 범람으로 인해 잦은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의 사족집단이 선호했다는 溪居地와는 거리가 먼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판단한다.
- 7) 장하리 진주강씨의 최초 족보는 1918년의 『晉州姜氏世譜』(戊午譜)이며, 현재의 『中正公家譜』는 1979년에 제작된 것이다. 인근 마을의 한 주민에 의하면, 수 십년전 충남 공주의 진주강씨 종중으로부터 문중 일을 보는 세 사람이 장하리에 진주강씨 종족촌락이 있음을 듣고 이들의 계보를 찾아 大同譜에 실고자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족보 편찬에 대한 장하리 진주강씨의 무관심과 홀대에 부딪쳐 수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끝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 제보자는 공주에서 온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며칠을 묵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한다(제보: 조범구(84), 상황리).
- 8) 전통 시기에 무당과 같은 신본은 대개 마을에서 일정 거리 격리된 곳에 거주하였고, 적어도 사족집단과 한 마을에 공존하지는 않았다. 2005년 현재 이 마을의 무당집은 거의 소멸되었고 한 곳만 남아 있다.
- 9) 제보: 조범구(84, 상황리), 조중구(68, 지토리).
- 10) 『朝鮮의聚落』(1935, 장세욱의 논문(2002)에서 재인용).
- 11) 제보: 조성년(73, 하황리), 김삼례(68, 후포리). 한국 전쟁기 동안 종종 나타났던 인접 마을 사이의 이 같은 갈등은 대개 전통적 신분 격차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박찬승, 2000; 이용기, 2001; 윤택림, 2003).
- 12) 虎網이란 원래 과거 호랑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쳐 놓았던 그물을 뜻하는데 하천 연안의 미개간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 13) 장하리 830-3번지에 해당하며 소유주는 '강상모 외 3인'으로 되어 있다. 강상모는 천진전 제의를 주관해왔던 인물이다.
- 14) 장세욱, 2002,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 *호서사학*, 33, 85.
- 15) 제보: 강상모(69, 장하리).
- 16) 제보: 강상모(69, 장하리).
- 17) 제보: 문필호(77, 북고리).
- 18) 19세기 동안 如周(20世)의 자손 중에서는 24世 載時, 25世 崑熙, 夏熙, 浩熙가, 以周(20世)의 자손 중에는 23世 赫昌이, 그리고 賢周(20世)의 자손 중에는 23世 沃昌, 泰煥(20世)의 자손 중에는 22世 必會가 각각 남평문씨를 처로 받아들였다.



- 19) 82세, 현재 장하리 거주.
- 20) 57명의 회원 명단은 하황리에 소재한 강호동지회 기념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21) 강동구(82, 장하리)는 1차 군법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전쟁이후 민법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수 차례의 재심을 겪었다. 결국 수년간의 옥살이 후에 석방될 수 있었는데, 부친이 방앗간을 하며 축적해 온 비교적 부유한 재산은 여러 차례의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거의 탕진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강호동지회 결성을 주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상황리와 하황리 주민들이 전쟁 중에 자신의 행적을 고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석방을 위해 일부 풍양조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었다'는 것, 따라서 '자신이 이웃한 두 마을을 화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들었다.
- 22) 9.28 서울 수복 이전의 한국전쟁동안 부여군 장암면 일대는 장하리의 진주강씨의 통치 하에 들어간다. 일부 진주강씨 村老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때는 진주강씨 세상이었다'고 말할 만큼, 장하리 진주강씨는 면 당위원장(강석철)에서부터 면 치안 대장(강주구), 면 치안 부대장(강동구) 등 3개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적 신분제 아래에 억눌려 있었던 풍양조씨와의 갈등은 바로 이 때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진주강씨는 상황리와 하황리의 풍양조씨를 추궁하다가 2명을 인민재판을 통해 사망케 했고, 9.28 수복 때에는 그 보복으로 진주강씨 10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때 장하리 방앗간 시설과 가축, 진주강씨 재산 등을 몰수당하게 된다(제보: 강동구, 82, 장하리).
- 23) 76세, 현재 하황리 거주.
- 24) 문필호(북고리 남평문씨 종손)와 문익호를 말함.
- 25) 강호동지회는 장하리 주민에 의한 정치적 연대의 하나일 뿐이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에서 장하리와 상황리, 하황리가 항상 제휴를 맺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오늘날의 각종 선거 행위에서는 장하리의 진주강씨와 상황리, 하황리의 풍양조씨가 여전히 연대하지 않는 편이다.
- 26) 제보: 강현면(47, 장하리 이장 겸 환경사랑 주민협의회 공동의장).

## 文獻

地籍圖(충청남도 부여군청)  
 舊土地臺帳(충청남도 부여군청)  
 朝鮮의聚落(1935, 朝鮮總督府).  
 扶餘郡誌(1987, 扶餘郡誌編纂委員會).

晉州姜氏世譜(1918).  
 晉州姜氏通溪公派中正公家譜(1979).  
 大倭教重光六十年史(1971, 大倭教總本司)  
 김일철 외, 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백산서당, 서울.  
 김 준, 2004,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서울.  
 김필동, 2000, "한국 종족집단의 형성과 변동," 농촌사회, 10, 261-292.  
 문옥표 외, 2004,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서울.  
 박찬승, 2000,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39, 274-308.  
 부여문화원, 2001, 부여의 민간 신앙, 북커뮤니케이션즈, 대전.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혜안, 서울.  
 이문종, 1998, "村落,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구조적 이해와 촌락 조사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지역개발연구논총, 7,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16.  
 이용기, 2001,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역사문제연구, 6, 11-55.  
 이창기, 2003, 울릉도, 독도, 동해안 어민의 생존전략과 적응, 영남대학교출판부.  
 윤택립,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 역사비평사, 서울.  
 장세욱, 2002,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 호서사학, 33, 61-103.  
 전중환, 2002,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61, 87-124.  
 전중환, 2004, "사족집단의 사회관계망과 촌락권 형성과정: 烏棲山의 溪居地 靑蘿洞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2), 36-52.  
 정근식 외, 2003, 구립연구 -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 경인문화사, 서울.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서울.  
 Brace, C., 1999, Finding England Everywhere: regional identity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1890-1940, *Ecumene*, 6(1), 90-109.  
 Claval, P., 2005, Reading the rural landscap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9-19.  
 Cloke, P., et al., 1994,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ies*, Paul Chapman Publishing Ltd., London.  
 Little, J., 1999, Otherness, represent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rurality, *Progress in Human*

전종한

- Geography*, 23(3), 437-442.
- Lowenthal, D., 1994, European and English landscape as national symbols, in Hooson, D.(ed.), *Geography and National Identity*, Blackwell, Oxford, 15-38.
- Mitchell, C. J. A., 2004, Making sense of counterurbaniz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20, 15-34.
- Palang, H., *et al.*, 2005, Rural landscape: past processes and future strategi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3-8.
- Phillips, M., 1998, The restructuring of social imaginations in rur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14(2), 121-153.
- Sack, R. D., 1983, Human territoriality: a theo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 55-70.

교신: 전종한,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마을공동체연구단(이메일 : philotopoer@yahoo.co.kr, 전화 : 042-821-6947, 팩스 : 042-822-7181)

Correspondence: Jong-Han Jeon, Research Fellowship, Research Center for Settlement Commu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e-mail: philotopoer@yahoo.co.kr, phone: 042-821-6947, fax: 042-822-7181)

최초투고일 05. 8. 1

최종접수일 05. 12. 19